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Trend Analysi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1차원고접수: 2023.10.18. 수정원고접수: 2024.02.27. 최종게재결정: 2024.03.18.

윤안순¹ · 박효영²¹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²숙명여자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연구 교수Yun, An-Soon¹Park, Hyo-Young²¹Dep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²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요 온라인 논문 검색사이트를 활용하여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키워드로 하는 국내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였고, 중복된 논문을 제외하여 논문을 통합하였다. 통합한 자료는 데이터 정제 기준을 토대로 전처리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분석을 위한 키워드를 추출하였다. 추출한 키워드에 대해 논문에 등장한 빈도 수를 확인하고,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을 분석하여 연구의 전체 수행 기간과 연구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조절', '영양', '교육', '능력'은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빈번히 등장한 키워드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연구 시기에 따라 논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조절', '교육', '능력'은 주요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심성 순위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었고, '긍정'은 중심성 순위에서 두드러진 변화가 있는 키워드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를 확인하고, 연구 시기에 따라 핵심 키워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정서지능 관련 후속 연구가 수행되는 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어 정서지능,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rends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conducted in Korea. For this purpose, we collected papers using major online sites and integrated papers by excluding duplicate papers. The integrated data went through a pre-processing process based on data cleaning, and keywords were extracted. The frequency of appearance of papers for each keyword was checked, and the degree centrality, betweenness centrality, closeness centrality, and eigenvector centrality of the keyword network were examined. As a result of the study, 'control', 'infants', 'education', and 'ability' were keywords that frequently appeared in emotional intelligence studies. In addition, 'control', 'education', and 'ability' were found to be the main keywords from the early to the late period, but there was some difference in the centrality ranking. 'Positive' appeared as a keyword with a notable change in centrality ranking. In this study, we identify keywords that frequently appear in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through keyword network analysis and identify changes in core keywords depending on the research period. This study will serve as helpful data for conducting follow-up research on emotional intelligence.

Keywords emotional intelligence, research trend, keyword network analysi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가정, 학교, 직장 등의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지적 능력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

의 정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능력은 전 생애 동안 지속적으로 발달하며 (Mayer, Roberts, & Barsade, 2008), 대인관계, 학업성취, 직무 수행, 정신건강 등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중요하다. 이처럼 개인의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감정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정서지능(emotional in-

Corresponding to 윤안순 (Yun, An-Soon)

전남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Dept.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mail. yas2545@daum.net

Copyright © 2024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telligence)이라고 한다(Bar-On, 1997; 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Salovey와 Mayer(1990)는 정서지능이란 용어를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Goleman(1995)은 그의 저서를 통해 정서와 지능이 결합되어 재능이나 성격 유형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정서지능을 기술하고 이를 지능 지수(intelligence quotient)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후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에 대해 Mayer와 Salovey(1997)는 정서지각, 정서표현, 정서이해, 정서조절로 구분하였고, Goleman(1998)은 자기인식능력, 자기조절능력, 자기동기화능력, 공감능력,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회적 기술능력 등 5가지로 구분하였다. 정서지능의 개념과 하위영역에 대한 탐색 결과를 토대로 정서지능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도구와 척도들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도구들이 정서지능 연구와 평가에 주요한 역할을 하면서(Boyatzis, Goleman, & Rhee, 2000; Salovey, Mayer, Caruso, & Lopes, 2003),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지능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었다.

국외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3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정서지능 관련 연구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가정 환경에서 자녀의 정서조절 능력과 부모의 정서조절 발달 수준 간의 연관성(Turculet & Tulbure, 2014), 부모-자녀 간의 정서지능과 정신건강 관계(Sánchez-Núñez, García-Rubio, Fernández-Berrocal, & Latorre, 2020) 연구는 가정 내 정서지능이 자녀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학습 분야에서의 선행연구들은 정서가 학생들의 주의 집중과 인지적 활용을 주도하여 학습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문제해결 능력과 자기조절 학습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밝혔다(Ainley, Corrigan, & Richardson, 2005; Hansenne & Legrand, 2012; Libbrecht, Lievens, Carette, & Côté, 2014; Parker et al., 2004; Vahedi & Nikdel, 2011). 또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서적 문제, 섭식장애, 중독, 부적응 행동과 같은 문제들이 정서지능과 관련 있다는 연구(Resurrección, Salguero, & Ruiz-Aranda, 2014),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낮은 감정 이해

와 조절 능력을 언급한 결과(Rueda, Pérez-Romero, Cerezo, & Fernández-Berrocal, 2022)는 학교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라는 직업적 성공과 만족에 필수적인 능력으로 간주되는 바(Parinussa, Taryana, Ningtyas, Rachman, & Tannady, 2023), 교사가 자신과 타인의 감정 상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담당 학생의 의도를 이해하는 한편 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밝혀졌다. 나아가 정서를 인식, 이해, 조절, 표현, 활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서지능 기반 예비 교사 교육과정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Durnali, Orakci, & Khalili, 2023). 종합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서지능이 학생들의 사회적·정서적 발달과 학업성취, 그리고 교육현장에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직장 내에서 정서지능이 조직 내 리더십 역량(Badri-Harun, Zainol, Amzairi, & Shaari, 2016; Herbst, Maree, & Sibanda, 2006; Saha et al., 2023; Singh, 2007; Weinberger, 2009), 효과적인 직무 수행(Ealias & George, 2012; Newman, Joseph, & MacCann, 2010; Sener, Demirel, & Sarlak, 2009; Sy, Tram, & O'hara, 2006)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하면서, 이 분야에서의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었다. 최근 연구는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장의 변혁적 리더십(Noori, Orfan, & Noori, 2023)에 이어 학교 리더십(Gil-Moreno & Rico-González, 2023; Gómez-Leal, Holzer, Bradley, Fernández-Berrocal, & Patti, 2022)과의 관련성을 탐구하며 학교 환경 내에서도 정서지능의 역할을 확인했다. 이는 정서지능이 단순히 개인적 성공이나 만족에 국한되지 않고 조직적 성공과 리더십의 효과성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교육을 통해 정서지능의 향상 가능성을 탐구한 실험연구와 메타분석(Kotsou, Mikolajczak, Heeren, Grégoire, & Leys, 2019; Nelis, Quoidbach, Mikolajczak, & Hansenne, 2009; Zeidner, Roberts, & Matthews, 2002)은 정서지능 개발이 학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국외 연구들은 학문적, 교육적, 실제적 관점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

구 주제와 방법론의 다양성이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정서지능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서지능의 역할과 중요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정서지능 개념 정립(이병래, 1997; 이주일, 민경환, 1996), 측정도구 개발(김경희, 김경희, 1998; 이수정, 이훈구, 1997), 정서지능 발달(김경희, 김경희, 2000)에 중점을 두었다. 2000년대 초반 이후 국내의 정서지능 연구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교육, 직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구체적으로 유아와 어린이의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는 어린 시절 초기 정서 경험이 개인의 정서지능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김유미, 2007; 유민임, 2005; 이승은, 2005, 2011). 부모의 양육 스타일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종훈, 성지현, 2013; 염미애, 문혁준, 2007; 유지은, 김성재, 황지애, 2017)는 가정 환경과 부모의 역할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지능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학업성취, 학교생활 적응, 대인관계, 다문화 태도, 직무 수행 능력, 교사의 전문성 인식 및 스트레스 관리, 삶의 만족도 및 행복감, 긍정적 대인관계와 같은 다양한 변수들과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탐구함으로써, 정서지능이 개인의 성공과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한다. 정서지능과 관련한 변인으로는 학업성취(강인경, 김춘경, 2014; 박문숙, 유미현, 2014; 신재한, 2007; 조한익, 김수연, 2008), 학교생활 적응(강세미, 엄정애, 2007; 김희수, 2020)을 다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이숙정, 2012), 대인관계(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09), 다문화 태도(이병임, 2021)를 함께 살펴보려는 연구도 수행되었으며, 나아가 대학생용 정서지능 측정 도구 개발 연구(이명심, 2020)도 진행되었다. 학업 상황에서 벗어나 직장에서 정서지능과 직무 수행 능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김정석, 2023; 노은숙, 부성숙, 2012; 문용린,

임태조, 곽윤정, 이현웅, 2007; 문혜련, 강재희, 2015; 이재원, 윤지희, 2009; 조혜진, 김수연 2012). 특히 영유아 교육장면에서 교사의 정서지능이 전문성 인식(송미선, 2013), 교사의 스트레스 관리(권정윤 2010; 송미선, 김소양, 2009), 교사-영아 상호작용과 교사효능감(송순옥, 성연정, 2016; 조혜진, 김수연, 2012), 학급 내 행동 관리(김민숙, 엄정애, 2016)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영유아 교사의 정서지능이 강조되고 있다. 나아가 정서지능과 삶 만족도(이항, 김준환, 2022), 행복감(김영화, 김수진, 2022; 박현숙, 2018; 손혜숙, 이지영, 2018; 장경림, 김신영, 2017), 긍정 심리(곽윤정, 강민수, 2013; 김경희, 최배석, 2018; 김정진, 2012) 및 긍정적 대인관계(강수정, 유금란, 2016; 이혜경, 2012; 지경자, 유진영, 2013)의 관련성 연구도 계속해서 수행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정서지능이 개인의 성공과 정신건강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정서지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입의 일환으로 예술 활동(전방실, 2001), 놀이(천은영, 박화운, 김오순, 2005), 독서(박경애, 이찬숙, 2009), 미술(박윤정, 이미선, 2023; 오은경, 정광조, 이근매, 2005)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정서지능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연구(곽윤정, 2005; 김주연, 2014),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연구(여숙현, 임정아, 최은미, 김명식, 2019; 정옥분 등, 2010)와 같은 실제 교육 및 상담 분야 응용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는 정서지능의 실제적인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교육 현장에서 정서지능 개발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다문화 구성원들의 정서지능이 자녀의 인지, 정서, 행동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되고 있으며(김명숙, 이미현, 2019; 김진희, 임지영, 2013;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전해정, 2009; 이창식, 박지영, 임인택, 2012; 천우영, 2016), 다문화 가정에서의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효과 연구(곽윤정, 2013)도 수행되었다.

종합하면 국외와 국내에서의 정서지능 연구는 모두 교육, 실무 분야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는 정서지능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서지능 연구동향 분석이 수행되었다. 연구동향 분석은 특정 분야의 과거 연구 경향을 파악하고 미래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최지은, 2019). 이러한 분석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다루는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국내 연구에서는 유아 정서지능(송미선, 2012), 교사의 정서지능(김진선, 신주연, 2021) 등 대상을 제한하여 연구를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유아교육 관련 정서지능(하선혜, 서현아, 2013), HRD 분야에서의 정서지능 연구(황영아, 김지원, 송영수, 2017)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연구동향 분석이 확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연구동향은 연구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으며, 관련 연구들이 다루는 주제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기존의 정서지능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분석 시기와 분석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논문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그리고 연구효과를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재조합하여 전체적인 이해를 시도하였다. 반면에 국내에서 정서지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연구의 흐름 변화를 다룬 시도는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주로 빈도를 통해 연구주제, 방법 등을 살펴보는 데 그쳤다. 황영아 등의 연구(2017)에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정서지능 연구동향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해당 연구는 연구 영역이 HRD에 한정되어 있어, 정서지능 전반에 대한 핵심 주제와 관련 연구들의 지식 구조와 같은 전체적인 연결망 구조를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서지능 관련 연구물의 주요 키워드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서지능 관련 연구들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전체적

인 경향성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동향 분석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연구물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서지능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데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은 특정 주제에 대한 논문에서 사용된 핵심어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최근에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다. 이 분석 방법에서는 특정 주제에 대한 문헌에서 키워드(단어)를 추출하고 각 키워드 쌍(link)의 동시 출현 빈도를 계산하여 키워드 간의 유사성을 나타내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이 분석은 단어의 빈도 및 다른 속성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키워드 간의 관계적 속성을 사회적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탐색한다(이수상, 2014). 따라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동시 단어 분석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키워드를 정제하고 적절한 수의 키워드를 선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방법은 연구 패턴과 경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며, 특정 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간의 관련성을 측정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 시기별 키워드를 분석하여 해당 연구 분야에 게재된 논문의 수, 저자수의 변화, 그리고 빈번하게 등장하는 키워드를 파악하고 주요 키워드 간의 강도를 측정하여 연구의 패턴과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김종훈, 최우식, 정미라, 20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관련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최근 동향과 주요 연구 주제를 파악하고,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이를 탐색함으로써 다양한 관점에서 정서지능 연구에 대한 학문적 이해와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요 키워드들의 관계를 시각화하고 분석하

는 방법으로, 복잡한 연구 동향을 시각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기반으로 정서지능과 관련한 국내 연구들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시기에 따른 핵심 키워드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서지능 관련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출현 빈도(시기별 출현 빈도)가 높은 키워드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는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관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째, 주요 온라인 논문 검색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kr)와 한국학술정보시스템(kiss.kstudy.com)을 통해 2022년까지 출판된 국내 학술지 논문을 수집하고, NetMiner의 BDC(Biblio Data Collector) 프로그램에서 추가로 KCI 논문을 수집하였다. 이때 키

워드 혹은 주제어에 ‘정서지능’, ‘감성지능’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수집하였으며, 중복된 자료를 제외하는 통합 과정을 거쳐 총 1,773편의 논문을 확인하였다.

둘째, 키워드 추출에 앞서 수집된 자료에 대한 전처리(preprocess)를 실시하였다. 전처리는 BDC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하였고, 연구의 초록과 연구자 지정 키워드에 한국어 명사를 기준으로 키워드를 추출하도록 지정하였다. 또한 유사어, 지정어, 제외어 사전을 입력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는 키워드 정제 과정을 거쳤으며 정제 기준과 예시는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사어 사전에서는 동의어를 통일하고 학생, 뇌손상 등의 상위 범주로 묶거나 대표 키워드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쳤다. 제외어 사전에는 논문 탐색에서 사용한 주제어와 지역명, 해석불가 키워드 등을 입력하였다. 3글자 이상의 단어는 음절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정어 사전에 입력하여 하나의 키워드로 추출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 키워드 정제 과정까지 완료된 자료를 NetMiner 파일로 변환하였고 1글자인 키워드를 제외하는 명령어를 실행하여 569개의 키워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분석을 위한 적정 수의 키워드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키워드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모든 단어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에 적용되지 않고 자질(features)이 높은 단어들이 키워드로 선정되며 주로 단어의 등장 빈도를 기초로 분석대상 키워드가 선정된다(이수상, 20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정제 과정을 통해 추출된 키워드가 논문에 등장한 빈도 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 ~ 3회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였고 이후 빈

표 1. 키워드 정제 기준

정제 기준		정제 예시	
유사어 통일	동의어 통일	교원, 담임 → 교사	
		창의, 창조력 → 창의력	
	상위 범주로 통일	남학생, 여학생, 전교생 → 학생	
		뇌연화증, 뇌진탕, 뇌출혈 → 뇌손상	
제외어	대표 키워드로 통일	다문화가정, 다문화교육 → 다문화	
		협동성, 협동심 → 협동	
	검색어 제외	정서지능, 감성지능	
해석불가 키워드 제외	지역명 제외	강원도, 경상도, 인천	
		가미, 가속, 바탕, 사건, 전체, 행렬, 해석	

도 수를 기준으로 10회 이상에서 큰 변환점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등장한 논문 수가 10회 이상인 키워드를 추출하여 총 197개의 키워드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상 자료수집의 절차를 도식화하여 그림 1에 제시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9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정서지능 연구의 전체 수행 시기뿐만 아니라 연구의 시기를 구분하였을 때 나타나는 키워드별 등장 빈도 수를 확인하였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나 정부 정책(유영의, 한유진, 김은정, 이성주, 2022), 균등한 시기 분할(이효림, 김종훈, 김민정, 2018), 연구의 양적 변화(윤안순, 김아름, 2023) 등을 근거로 하여 연구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773편의 자료는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출판된 국내 학술지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그림 2에 제시한 연도별 논문 수를 살펴보면 2010년 이후로 정서지능 관련 연구의 수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의 전체 수행 시기를 고려해봤을 때도 1997년부터 2009년(297편), 2010년부터 2022년(1,466편)으로 각 13년씩 균등하게 연구의 시기를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기(1997 ~ 2009)와 연구 후기(2010 ~ 2022)에 따른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서지능 연구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해 중심성 지수를 확인하였다. 중심성 지수를 확인하기 전에 단어 동시 출현 네트워크를 생성하여 동시 출현 단어가 등장한 논문 수를 파악하고, 링크 필터링을 실시하였다. 링크 필터링에 절대적인 기준은 없기 때문에 링크를 하나씩 줄여가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링크 수, 밀도, 평균 연결정도 등을 확인하여 네트워크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는 지점을 찾아 단어 동시 출현 횟수가 일정 값 이상인 자료만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단어 동시 출현 횟수를 기준으로 연구 전기(1997 ~ 2009)는 3회 이상, 연구 후기(2010 ~ 2022)는 10회 이상인 자료를 추출하여 중심성 지수를 확인하고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단어(노드)가 중심에 차지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심성 지수가 높은 키워드를 추출하면 핵심 키워드를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중심성(degree centrality), 매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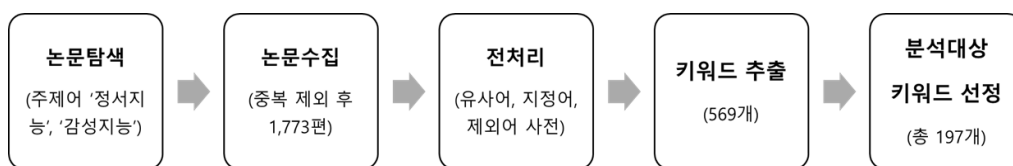


그림 1. 자료수집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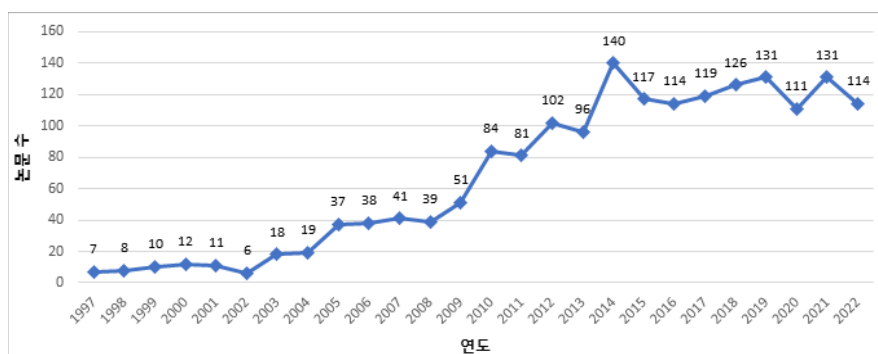


그림 2. 연도별 논문 수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근접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위세중심성(eigenvector centrality) 지수를 살펴보았다. 연결중심성은 노드 간의 연결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연결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다수의 노드와 많은 연결을 맺고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다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결중심성은 네트워크 구조에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각 노드의 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여(곽기영, 2017),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는 데 활용된다. 매개중심성은 노드들 간의 사이를 매개하는 정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매개중심성이 높다는 것은 하나의 노드에서 다른 노드와의 연결을 돕는 중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가 흘러가는데 높은 통제력을 갖고 있음을 나타낸다. 근접중심성은 각 노드가 네트워크 중앙에 근접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고 이 값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여 정보를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세중심성은 특정 노드가 영향력이 높은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 정도를 의미하고, 전체 네트워크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노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동향 분석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셋째, 중심성 지수를 통해 정서지능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 키워드를 비교한 후, 에고 네트워크(ego network)를 분석하였다. 에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는 연구자가 지정한 특정 키워드와 직접적으로 연결을 맺고 있는 노드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분석한다(곽기영, 2017). 이를 통해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출현한 핵심 키워드와 연결을 맺는 노드들도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PFnet(Path Finder Network Scaling)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단어 간 연관성이 높은 네트워크를 2D(Spring map)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PFnet은 복잡한 네트워크 중에서 단어(노드)는 그대로 유지하되 중요한 링크들만 남겨놓은 정제된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상 자료에 대한 분석과 시각화는 NetMiner 4.5.0 프로그램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키워드별 논문 등장 빈도 수

1) 전체 연구 기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총 197개의 키워드가 1997년에서 2022년까지의 정서지능 관련 논문에서 등장한 빈도를 살펴보고, 이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조절’이 434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영유아(398회)’, ‘교육(390회)’, ‘능력(319회)’, ‘긍정(282회)’, ‘감정(258회)’, ‘학생(257회)’, ‘교사(240회)’, ‘직무(231회)’, ‘표현(210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 그림 3에는 정서지능 전체 연구 기간(1997 ~ 2022)을 기준으로 논문에서 등장한 총 197개 키워드의 빈도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를 제시하였다.

표 2. 키워드 등장 빈도 수 상위 10개(전체 연구 기간)

순위	키워드	빈도 수	순위	키워드	빈도 수
1	조절	434	6	감정	258
2	영유아	398	7	학생	257
3	교육	390	8	교사	240
4	능력	319	9	직무	231
5	긍정	282	10	표현	210



그림 3. 키워드 등장 빈도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전체 연구 기간)

2) 연구 시기별

연구 전기(1997 ~ 2009)와 후기(2010 ~ 2022)에 따라 논문에 등장한 키워드의 빈도 수를 살펴보고 시기별로 상위 10개에 해당하는 키워드를 다음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전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297편, 연구 후기에 해당하는 논문은 1,466편임을 고려해보면 빈도

수에 다소 차이가 있긴 하나, 연구 전기와 후기에 모두 ‘조절’이 논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유아’, ‘교육’, ‘능력’ 등의 순이었다. 그다음 순위의 키워드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았을 때 연구 전기(1997 ~ 2009)에는 ‘표현’, ‘발달’, ‘감정’, ‘교사’와 ‘아동’, ‘학생’, ‘창의력’ 순의 키워드가 논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었다. 반면 연구 후기(2010 ~ 2022)에는 ‘긍정’, ‘학생’, ‘감정’, ‘직무’, ‘교사’, ‘만족’ 등의 키워드가 논문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연구 전기와 후기에 따라 논문에서 등장한 키워드의 빈도 수를 기준으로 워드 클라우드를 생성하여 그림 4에 제시하였다.

2. 시기별 핵심 키워드 분석

1) 연구 전기(1997 ~ 2009)

먼저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전기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노드 수는 174, 링크 수

는 621, 밀도는 0.041, 평균 연결정도는 7.138, 평균 연결거리는 2.213, 직경은 4로 나타났다. 평균 연결정도는 네트워크의 응집력을 의미하며 연구 전기의 네트워크 구조를 볼 때, 전체 연결정도에서 각각의 노드가 다른 노드와 약 7회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쌍의 최단거리는 평균 2.213인 반면 가장 긴 연결거리인 직경이 4로 나타나 최대 4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전기에 해당하는 시기에서 등장한 키워드는 총 174개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중심성 지수를 통해 다음 표 4와 같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순위에서 차이가 있긴 하나 대체로 각 중심성 지수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키워드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절(1순위)’과 ‘능력(2순위)’은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 전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표 3. 키워드 등장 빈도 수 상위 10개(연구 시기별)

순위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키워드	빈도 수	키워드	빈도 수
1	조절	62	조절	371
2	영유아	61	영유아	336
3	교육	56	교육	331
4	능력	55	능력	262
5	표현	44	긍정	255
6	발달	38	학생	229
7	감정	34	감정	224
8	교사, 아동	31	직무	211
9	학생	28	교사	208
10	창의력	27	만족	184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그림 4. 키워드 등장 빈도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연구 시기별)

‘교육’, ‘발달’, ‘감정’이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 중심성 기준으로 3순위에서 5순위, 매개중심성 기준으로 4순위에서 6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초기에는 교육 현장의 주체가 되는 ‘영유아’, ‘아동’, ‘학생’, ‘교사’ 등에 대한 주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연결중심성과 근접중심성 지수에서는 ‘긍정’과 ‘사고’가, 매개중심성 지수에서는 ‘창의력’이 연구 초기에 나타난 주요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를 2D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연결중심성의 값이 클수록 도형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연결중심성 기준으로 상위 10위권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육각형의 형태로 나타냈으며 이러한 핵심 키워드들은 다수의 키워드와 연결을 맺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2) 연구 후기(2010 ~ 2022)

먼저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후기에 해당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면 노드 수는 197, 링크 수는 929, 밀도는 0.048, 평균 연결정도는 9.431, 평균 연결거리는 2.061, 직경은 4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연구 후기의 네트워크는 각각의 노드가 다른 노드와 약 9회의 관계를 맺고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 쌍의 최단거리는 평균 2.061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경이 4로 나타나 연구 전기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내에서 최대 4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키워드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후기에 등장한 키워드는 총 197개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중심성 지수를 통해 다음 표 5와 같이 핵심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연구 후기에도 연구 전기와 유사한 주제가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었으나, 중심성 지수의 값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키워드의 순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조절(1순위)’과 ‘교육(2순위)’은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이는 키워드로 나타나 연구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정서지능 혹은 이와 관련한 능력의 조절이나 교육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꾸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긍정’이라는 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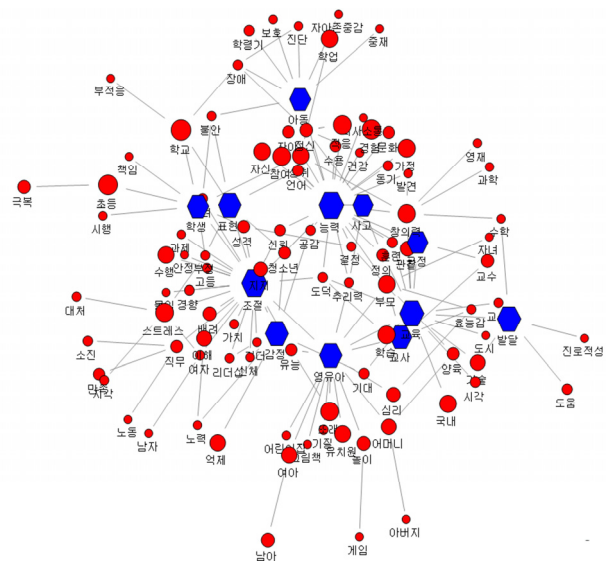


그림 5.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연구 전기, 고립노드 제외)

표 4. 핵심 키워드 분석(1997 ~ 2009)

순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1	조절	0.387	조절	0.099	조절	0.450	조절	0.260
2	능력	0.347	능력	0.059	능력	0.422	능력	0.249
3	교육	0.306	아동	0.035	교육	0.404	교육	0.243
4	발달	0.272	교육	0.034	발달	0.389	발달	0.233
5	감정	0.254	발달	0.026	감정	0.383	감정	0.218
6	영유아, 표현	0.225	감정, 영유아	0.024	교사	0.370	교사	0.212
7	교사	0.220	학생	0.020	표현	0.364	표현	0.207
8	아동, 학생	0.208	창의력	0.018	아동, 영유아, 학생	0.360	학생	0.188
9	긍정	0.179	교사	0.014	긍정	0.352	긍정	0.187
10	사고	0.173	표현	0.013	사고	0.350	영유아	0.186

워드가 매개중심성 기준으로 5순위, 그 외 중심성 지수에서 3순위로 등장하고 있어 ‘긍정’은 연구 전기에 비해 2010년 이후로 보다 더 중요한 핵심 주제로 나타났다. 이 외에 연구 후기에는 ‘영유아’, ‘학생’, ‘교사’ 등이 핵심 키워드에 포함되었으나 연구 전기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아동’은 등장하지 않았다. 또한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지수에서 ‘이해’와 ‘수행’이 연구 전기에는 볼 수 없던 핵심 키워드로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 구조를 2D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6과 같다. 연결중심성의 값이 클수록 도형의 크기가 큰 것을 알 수 있고, 육각형 형태의 키워드는 연결중심성 기준 상위 10개의 키워드로서 다수의 키워드와 연결을 맺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나타난 핵심 키워드 중에서 중심성 분석 기준으로 상위 키워드에 해당하는 노드를 중심으로 예고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예고 네트워크는 특정 노드를 중심으로 형성된 네트워크를 제시함으로써 키워드 간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1순위로 출현한 ‘조절’ 키워드를 예고 네트워크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표 6과 같이 예고 네트워크 분석을 비교한 결과, 연구 전기에 비해 연구 후기에서 ‘조절’ 키워드와의 연결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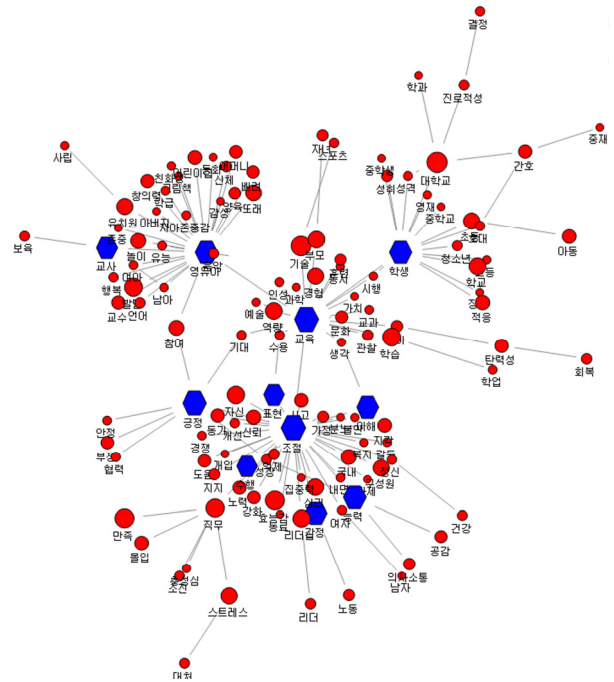


그림 6. 연결중심성 기준에 따른 네트워크(연구 후기, 고립노드 제외)

표 5. 핵심 키워드 분석(2010 ~ 2022)

순위	연결중심성		매개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키워드	값
1	조절	0.474	조절	0.095	조절	0.511	조절	0.248
2	교육	0.454	교육	0.075	교육	0.496	교육	0.246
3	긍정	0.367	영유아	0.063	긍정	0.450	긍정	0.230
4	능력	0.352	학생	0.054	능력	0.442	능력	0.229
5	영유아, 학생	0.342	긍정	0.028	학생	0.440	감정	0.215
6	감정	0.311	능력	0.022	영유아	0.435	학생	0.205
7	이해	0.255	감정	0.015	감정	0.422	영유아	0.196
8	교사	0.245	대학교	0.013	이해	0.399	이해	0.190
9	표현	0.219	이해, 교사	0.009	교사	0.396	교사	0.182
10	수행	0.204	표현, 여자	0.007	수행	0.385	수행	0.171

표 6. ‘조절’ 예고 네트워크 분석 비교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노드 수: 68, 링크 수: 495, 밀도: 0.217				노드 수: 94, 링크 수: 847, 밀도: 0.194			
	노드	연결 정도(degree)		노드	연결 정도(degree)		
1	능력	45		교육	75		
2	교육	42		긍정	70		
3	감정	40		능력	64		

연구 전기(1997 ~ 2009)			연구 후기(2010 ~ 2022)		
노드 수: 68, 링크 수: 495, 밀도: 0.217			노드 수: 94, 링크 수: 847, 밀도: 0.194		
	노드	연결 정도(degree)		노드	연결 정도(degree)
4	발달	39		감정	61
5	표현	36		학생	57
6	교사	33		영유아	51
7	영유아	32		이해	49
8	학생	31		교사	46
9	긍정, 아동	28		수행	40
10	사고	27		표현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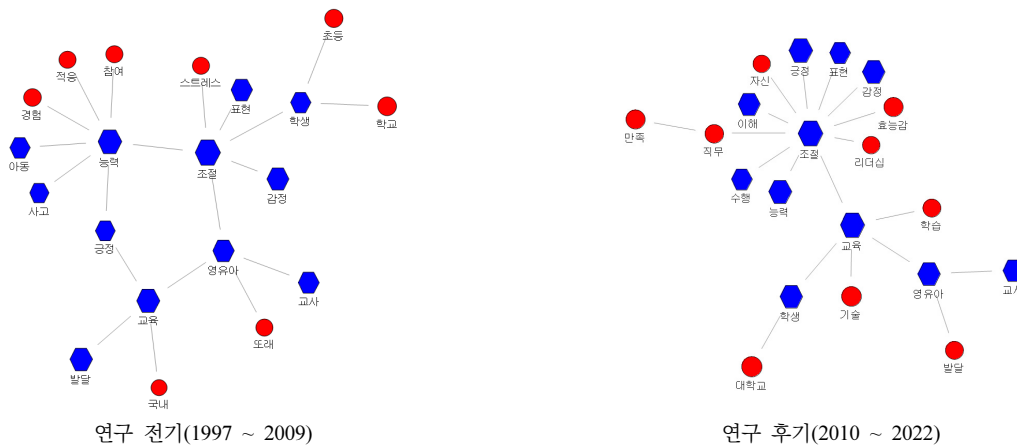


그림 7. ‘조절’ 에고 네트워크 비교(연결 정도 상위 20)

순위가 두드러지게 높아진 것은 긍정(9순위 → 2순위)과 학생(8순위 → 5순위)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전기에는 보이지 않았던 이해(7순위)와 수행(9순위)이 연구 후기에 ‘조절’ 키워드와의 연결 정도 상위 10위권에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절’ 에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비교하면 다음 그림 7과 같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고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키워드별 논문의 등장 빈도를 살펴보았을 때, ‘조절’, ‘영유아’, ‘교육’, ‘능력’은 연구의 전체 수행 기간에서뿐 아니라 연구 기간을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았을 때도 높은 빈도를 보이는 키워드

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능은 나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정확히 인식하고 평가하고 이해하며 올바르게 조절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Goleman, 1995; Salovey & Mayer, 1990). 특히 나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비인지적으로나 인지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절 능력은 분명 중요한 기술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키워드가 지금까지 수행된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자주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더해 정서지능이 성공적인 직장 생활, 대인관계, 심리적 안녕감 등에 있어 인지적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는 주장에 따라 교육적 개입을 통한 정서지능의 향상에 주목하려는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교육’이라는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주목한 발달 시기는 영유아, 특히 유아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이다. 영유아 시기에 부모와의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정서적 경험은 이후 성

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정서발달에 토대를 구축한다(Goleman, 1995; Mayer & Salovey, 1997). 이에 국내에서는 유아기 정서지능의 발달양상(김유미, 2007; 유민임, 2005; 이승은, 2005, 2011)이나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자녀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는 연구(김종훈, 성지현, 2013; 염미애, 문혁준, 2007; 유지은 등, 2017) 등이 다수 수행되어 다른 연령보다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연구 시기에 따라 논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연구 전기(1997 ~ 2009)에는 ‘표현’, ‘발달’, ‘감정’, ‘교사’와 ‘아동’, ‘학생’, ‘창의력’ 순의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한 반면 연구 후기(2010 ~ 2022)에는 ‘긍정’, ‘학생’, ‘감정’, ‘직무’, ‘교사’, ‘만족’ 순의 키워드가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yer와 Salovey(1997)가 언급한 정서지능의 하위영역 중에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능력은 현재의 정서 상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의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정서인식 및 표현 능력은 주로 유아나 어린 아동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의 정서지능 연구가 상대적으로 영유아시기에 주목한 만큼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정서지능 및 이와 관련한 속성의 발달적 특징을 살펴보려는 경험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즉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의 초기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러한 능력의 하위속성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김경희, 김경희, 2000; 이병래, 1997; 이주일, 민경환, 1996). 반면 이후에는 영유아뿐 아니라 다양한 학령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심지어 성인의 직무 수행이나 직업적 특성에 있어 정서지능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연구대상의 범위가 다소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안성아, 정봉재, 2010; 이미선, 신용석, 2017; 장수복, 2013; 전타식, 2017).

셋째, 시기별 핵심 키워드를 분석해 보았을 때 계속해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었는데,

이러한 키워드는 중심성 지수의 순위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조절’은 연구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기까지 연결중심성(.387, .474), 매개중심성(.099, .095), 근접중심성(.450, .511), 위세중심성(.260, .248) 등 모든 중심성 지수에서 1순위를 벗어나지 않아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에서 가장 두드러진 관심을 보인 키워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 ‘능력’ 또한 연구 전기에서 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다.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위세중심성 기준으로 연구 전기와 연구 후기에 순위를 살펴보면, ‘교육’은 3순위에서 2순위로 바뀌었고 ‘능력’은 2순위에 위치하다 2010년 이후에 4순위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해석해 보면 ‘교육’과 ‘능력’은 다양한 주제와 연결되어 있고 비교적 네트워크 중앙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 간 해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서지능의 연구 전기와 후기 모두에 상대적으로 높은 중심성 지수를 나타내 주요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영유아’ 키워드의 연결중심성은 연구 전기에 .225(6순위), 연구후기에 .342(5순위)로 나타나 계속해서 다수의 키워드와 많은 연결을 맺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매개중심성은 연구 전기에 .024(6순위)에서 연구 후기에 .063(3순위)으로 키워드 간의 연결을 중재하는 힘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심성 지수의 순위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나타난 키워드는 ‘긍정’이다. ‘긍정’은 연구 전기에 연결중심성(.179), 근접중심성(.352), 위세중심성(.187) 기준으로 9순위에 머물렀던 것에 비해 연구 후기에는 연결중심성(.367), 근접중심성(.450), 위세중심성(.230) 기준으로 3순위, 매개중심성(.028) 기준으로 5순위에 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예고 네트워크 분석에서 ‘긍정’은 연구 전기에 비해 연구 후기에 핵심 키워드 1순위인 ‘조절’과 좀 더 높은 순위의 연결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후기에는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과 학교적응(박유영, 2010; 백정옥, 이은주, 2018), 삶 만족도(이향, 김준환, 2022), 행복감(김영화, 김수진, 2022; 박현숙, 2018; 손혜숙, 이지영, 2018; 장경림, 김신영, 2017;

장희선, 2017) 간에 관련성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 정서지능과 긍정 심리(곽윤정, 강민수, 2013; 김경희, 최배석, 2018; 김정진, 2012) 및 긍정적 대인관계(강수정, 유금란, 2016; 이해경, 2012; 지경자, 유진영, 2013)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도 있었다. 이상 중심성 지수 순위에서 ‘긍정’ 키워드의 변화와 관련 연구결과들을 통해 연구 후기에는 연령을 확대하여 학교와 삶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영역을 대상으로 인간의 심리적 안녕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넷째, 국내 정서지능 연구 전기에는 ‘사고’가, 연구 후기에는 ‘이해’와 ‘수행’이 핵심 키워드로 등장하였다. 연구 전기에 등장한 ‘사고’는 연결중심성(.173)과 근접중심성(.350) 기준으로 10순위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초기 연구에서는 정서지능의 개념을 정립하고 발달적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에 더해 2000년 이후로 이러한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특성인 ‘사고’가 발생하는 신경학적 기반의 차이를 살펴보려는 연구(서미숙, 2004)가 수행되었고, 창의적 사고와 정서지능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강승희, 황희숙, 2007; 김은희, 이철영, 유승엽, 2009)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연구 후기에는 ‘이해’와 ‘수행’이 핵심 키워드로서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해’는 연결중심성(.255) 7순위, 근접중심성(.399)과 위세중심성(.190) 8순위, 매개중심성(.009) 9순위에 위치하였다. ‘수행’은 연결중심성(.204), 근접중심성(.385), 위세중심성(.0171) 기준으로 10순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연구 후기에는 ‘조절’과 연결 정도가 높은 키워드로서 ‘이해’와 ‘수행’이 출현하기도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 후기로 갈수록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정서지능과 학업성취의 관계(강인경, 김춘경, 2014; 박문숙, 유미현, 2014)를 살펴보거나 영유아 교사를 포함한 성인의 직무 능력에 있어 정서지능의 영향을 탐색하려는 연구(노은숙, 부성숙, 2012; 문혜련, 강재희, 2015; 조혜진, 김수연 2012)등이 수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 시기별로 등장한 서로 다른 핵심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에서 연구대상의 연령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연구 후기에는 영유아를 포함한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각 연령대가 속한 환경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직업상 맡게 되는 업무에 미치는 정서지능의 영향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199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는 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정서지능의 발달 양상을 살펴보고, 학업 과제 수행뿐 아니라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정서지능 간의 관련성을 탐색하여 교육적 개입을 도모하려는 시도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10년 이후로는 연령을 확대하여 적응이나 심리적 웰빙 및 긍정적 대인관계에 있어 정서지능의 중요성을 알리고, 학습 상황뿐 아니라 직무수행 환경에서 정서지능의 영향력을 살펴보려는 시도가 두드러져 정서지능의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흐름은 정서지능이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환경에 잘 적응하고 더 나아가서 성공적으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올바르게 인식해서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는 데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때 긍정적인 힘을 발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은 어린 연령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각 세대가 직면하는 환경을 고려하여 정서지능 및 정서지능 관련 기술을 기르기 위한 실제적 개입에 대한 관심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이 많아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문화 태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고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학교와 직장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쏟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서지능은 다문화 감수성을 기르고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이병임, 2021; 천우영, 2016; 한희경, 2016), 국내 정서지능 연구에서 ‘다문화’ 키워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정서지능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가 무엇이고 연구 시기에 따라 관심 주제의 흐름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정서지능 연구의 대상이 확대되고 연구주제의 영역이 학교 환경에서 직무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지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정서지능 적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 수집된 연구가 학술지 논문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국외 정서지능 연구의 동향 분석도 함께 비교할 수 있다면 좀 더 통합적으로 정서지능 연구의 흐름을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본 연구의 결과가 정서지능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세미, 엄정애 (2007). 만 3세 유아의 정서지능과 유치원 적응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2(1), 5-21.
- 강수정, 유금란 (2016).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적응적 유머스타일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7(4), 275-294.
- 강승희, 황희숙 (2007). 유아의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성향, 정서지능 및 기질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3), 169-198.
- 강인경, 김춘경 (2014). 초등학생이 지각한 정서지능, 자기효능감, 자기주도적 학습태도 간의 구조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4(12), 115-137.
- 곽기영 (2017). *소셜네트워크분석* (2판). 서울: 청람.
- 곽윤정 (2005). 정서지능 교육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2), 333-363.
- 곽윤정 (2013). 다문화가정 어머니와 유아자녀를 위한 정서지능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7(2), 305-322.
- 곽윤정, 강민수 (2013). 드림클럽활동 프로그램이 부적응 청소년들의 정서지능, 우울성향, 자아상, 긍정정서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4), 23-47.
- 권정윤 (2010).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정서노동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0(6), 269-289.
<https://doi.org/10.18023/kjece.2010.30.6.012>
- 김경희, 김경희 (2000). 유아 정서지능 발달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1(4), 21-34.
- 김경희, 김경희 (1998). 유아용 정서지능 평정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2), 31-48.
- 김경희, 최배석 (2018). 긍정심리자본, 감성지능, 문화성향이 갈등관리방식에 미치는 영향: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실용음악전공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9), 594-605.
<https://doi.org/10.5392/JKCA.2018.18.09.594>
- 김명숙, 이미현 (2019). 다문화가정 부모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진로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2(1), 19-34.
- 김민숙, 엄정애 (2016). 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관리 능력과 문제행동지도 효능감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47(1), 51-71.
<http://doi.org/10.15854/jes.2016.03.47.1.51>
- 김영화, 김수진 (2022). 고등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자녀 의사소통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4(4), 145-162.
<https://doi.org/10.36431/JPE.14.4.8>
- 김유미 (2007). 유아의 정서발달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67-184.
- 김은희, 이철영, 유승엽 (2009). 사회지능과 감성지능이 광고 창의적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 · 광고*, 10(1), 13-34.
<https://doi.org/10.21074/kjlcap.2009.10.1.13>
- 김정석 (2023). 정서지능과 정서적 조직몰입 간 직무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6), 147-157.
<https://doi.org/10.22251/jlcci.2023.23.6.147>
- 김정진 (2012).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정서지능, 공존지능, 긍정성과 학업태도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교육*, 20, 1-29.
- 김종훈, 성지현 (2013). 부부갈등과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6(2), 87-107.
- 김종훈, 최우식, 정미라 (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육연구」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 *유아교육연구*, 37(3), 269-288.
<https://doi.org/10.18023/kjece.2017.37.3.013>
- 김주연 (2014). 초등학생 정서 지능 향상을 위한 정서 어휘 활용 프로그램 개발. *우리말교육현장연구*, 8(1), 33-72.
<https://doi.org/10.23109/fsikle.2014.8.1.002>
- 김진선, 신주연 (2021). 교사의 정서지능에 관한 연구 동향: 200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4(1), 177-206.
<https://doi.org/10.2499/kier.2021.341.177>
- 김진희, 임지영 (2013). 다문화가정 부부관계가 유아의 또래관계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일반가정유아를 비교 대상으로. *부모교육연구*, 10(1), 23-52.

- 김희수 (2020). 전문대학 학생이 지각한 정서지능과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2), 305-321.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22.305>
- 노은숙, 부성숙 (2012).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43(4), 113-135.
- 문용린, 임태조, 곽윤정, 이현웅 (2007). 한국 조직 내에서의 정서지능과 성인의 업무 수행 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4(1), 21-34.
- 문혜련, 강재희 (2015). 영아교사의 정서지능이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2), 121-136.
<https://doi.org/10.16978/ecec.2015.10.2.006>
- 민성혜, 이민영, 최혜영, 전해정 (2009). 다문화 가정 유아기 자녀의 정서지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7(1), 55-63.
- 박경애, 이찬숙 (2009). 발달적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9(2), 191-209.
<https://doi.org/10.18023/kjece.2009.29.2.009>
- 박문숙, 유미현 (2014).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격 강점, 정서지능, 학습몰입 비교 및 관계 분석. *영재교육연구*, 24(5), 829-849.
<https://doi.org/10.9722/JGTE.2014.24.5.829>
- 박유영 (2010). 유아의 유치원 적응력과 정서지능 및 사회적 유능감과의 관계. *유아교육학논집*, 14(6), 319-336.
- 박윤정, 이미선 (2023). 집단미술치료가 유아의 정서지능, 문제행동 및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연구*, 19(1), 175-204.
<https://doi.org/10.1010.32451/KJOAPS.2023.19.1.175>
- 박현숙 (2018). 간호대학생의 소명의식, 감성지능 및 전공몰입과 행복감 간의 관계: 전공몰입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정신간호학회지*, 27(4), 332-341.
<https://doi.org/10.12934/jkpmhn.2018.27.4.332>
- 백정옥, 이은주 (2018). 학교부적응 아동의 정서지능 및 또래관계 향상을 위한 미술치료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25(4), 463-483.
<https://doi.org/10.35594/kata.2018.25.4.003>
- 서미숙 (2004). 정서와 사고의 신경생리학적 기초.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53-68.
- 손혜숙, 이지영 (2018). 보육교사의 전문성 인식, 행복감 및 정서지능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교과교육연구*, 22(6), 414-425.
<https://doi.org/10.24231/rici.2018.22.6.414>
- 송미선 (2012). 국내 학술지에 나타난 유아 정서지능 관련 연구의 경향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3(3), 379-396.
- 송미선 (2013). 예비유아교사의 정서지능 및 정서성이 교사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연구*, 12(3), 277-295.
- 송미선, 김소양 (2009).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6(4), 99-119.
- 송순옥, 성연정 (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이 교사효능감과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력.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203-224.
- 신재한 (2007). 초등학생의 가정환경, 정서지능, 창의성, 학업성적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교육과학연구*, 38(2), 81-102.
- 안성아, 정봉재 (2010). 방사선사의 직무요구와 소진간의 관계에서 감성지능의 역할. *방사선기술과학*, 33(4), 313-320.
- 여숙현, 임정아, 최은미, 김명식 (2019). 중학생 정서지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상담학연구*, 20(1), 191-209.
<https://doi.org/10.15703/kjc.20.1.201902.191>
- 염미애, 문혁준 (2007). 유아의 정서지능 및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5(4), 61-75.
- 오은경, 정광조, 이근매 (2005). 집단미술치료가 빈곤가족아동의 정서지능 함양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7(3), 111-144.
- 유민임 (2005). 유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인지양식, 정서지능, 그리고 대인문제해결력. *열린유아교육연구*, 10(4), 317-335.
- 유영의, 한유진, 김은정, 이성주 (2022).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유아교사 역량 관련 연구 동향. *어린이미디어연구*, 21(4), 325-352.
<https://doi.org/10.21183/kjcm.2022.12.21.4.325>
- 유지은, 김성재, 황지애 (2017). 어머니의 스마트폰 사용습관이 유아의 공격성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8(1), 325-335.
<https://doi.org/10.5762/KAIS.2017.18.1.325>
- 윤안순, 김아름 (2023).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작업기억 연구동향 분석. *교육심리연구*, 37(2), 187-209.
<https://doi.org/10.17286/KJEP.2023.37.2.04>
- 이명심 (2020). 대학생의 정서지능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7), 903-935.
<https://doi.org/10.22251/jlcci.2020.20.17.903>
- 이미선, 신용석 (2017). 교육복지사업학교 교사의 감성지능이 직무만족과 사업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19(2), 303-334.
- 이병래 (1997). 정서 지능 개념의 성립. *열린유아교육연구*, 2(2), 195-214.
- 이병임 (2021).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다문화 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융합*, 43(6), 513-524.
- 이수미, 조경자, 김혜리 (2009).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대인관계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6(3), 131-147.
- 이수상 (2014). 언어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활용한 학술논문의 내용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1(4), 49-68.
<https://doi.org/10.3743/KOSIM.2014.31.4.049>

- 이수정, 이훈구 (1997). Trait Meta-Mood Scale의 타당화에 관한 연구: 정서지능의 하위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1), 95-116.
- 이숙정 (2012). 대학생의 정서지능이 유능감과 스트레스를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19(1), 53-69.
- 이승은 (2005). 유아기 감성지능 발달 경향성 연구. *아동학회지*, 26(6), 29-43.
- 이승은 (2011). 유아기 정서표현규칙과 정서인식의 발달에 관한 연구. *한국보육학회지*, 11(4), 121-142.
- 이재원, 윤지희 (2009). 특수교사의 감성지능이 교사효능감과 교수수행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537-563.
- 이주일, 민경환 (1996). 정서기능: 개념의 소개 및 연구 전망. *심리과학*, 5(1), 67-84.
- 이창식, 박지영, 임인택 (2012). 농촌다문화 초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 및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농촌지도와 개발*, 19(4), 881-904.
- 이항, 김준환 (2022). 정서지능과 e스포츠 게임에서의 심리적 웰빙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20(4), 23-30.
<https://doi.org/10.14400/JDC.2022.20.4.023>
- 이혜경 (2012). 간호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행복감. *간호와 혁신*, 16(1), 11-20.
- 이효림, 김중훈, 김민정 (2018). 국내 현직 유아교사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빈도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의 비교: 2000-2017. *유아교육연구*, 38(3), 143-178.
<https://doi.org/10.18023/kjece.2018.38.3.006>
- 장경림, 김신영 (2017).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수준과 정서지능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발달지원연구*, 6(2), 155-166.
<https://doi.org/10.22839/adp.2017.6.2.155>
- 장수복 (2013). 해양경찰특공대의 정서지능과 자기효능감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2), 439-463.
<https://doi.org/10.16961/polips.2013.8.2.439>
- 장희선 (2017).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2(1), 303-324.
<https://doi.org/10.20437/KOAECE22-1-12>
- 전방실 (2001).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2(1), 155-173.
- 전타식 (2017). B2C 시장에서 영업사원의 감성지능이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관계결속에 미치는 영향. *아태경상저널*, 9(3), 15-32.
- 정옥분, 김미진, 노성향, 박연정, 정순화, 임정하 (2010). 유아의 정서지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연구. *인간발달연구*, 17(4), 191-209.
- 조한익, 김수연 (2008). 초등학교생의 성취목표지향성, 정서 및 정서지능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22(2), 443-460.
- 조혜진, 김수연 (2012). 영아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89-208.
- 지경자, 유진영 (2013). 보건계열 대학생의 정서지능과 대인관계 및 심리적 행복감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1(10), 653-660.
- 천우영 (2016). 다문화가정의 아버지 정서지능이 유아 공감 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 · 보육복지연구*, 20(4), 141-163.
- 천은영, 박화윤, 김오순 (2005). 생활주제에 따른 실내 모래놀이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기술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69-85.
- 최지은 (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영유아 놀이 관련 연구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605-626.
<https://doi.org/10.22251/jlcci.2019.19.14.605>
- 하선훤, 서현아 (2013). 정서지능 관련 학술지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4(2), 461-485.
- 한희경 (2016). 유아교사의 다문화감수성과 다문화교수효능감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21(5), 379-399.
<https://doi.org/10.20437/KOAECE21-5-16>
- 황영아, 김지원, 송영수 (2017). 국내 감성지능 연구동향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의 활용. *기업교육과인재연구*, 19(2), 129-157.
<https://doi.org/10.46260/KSLP.19.2.6>
- Ainley, M., Corrigan, M., & Richardson, N. (2005). Students, tasks and emotions: Identifying the contribution of emotions to students' reading of popular culture and popular science texts. *Learning and Instruction*, 15(5), 433-447.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05.07.011>
- Badri-Harun, A., Zainol, M. R., Amzairi, A. M. A. R., & Shaari, Z. H. (2016). Emotional intelligence as mediator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leadership effectiveness: A theoretical framework. *International Review of Management and Marketing*, 6(1), 116-121.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05.07.011>
- Bar-On, R. (1997). *Bar-On emotional quotient inventory: User's manual*. Toronto, ON: Multihealth Systems.
- Boyatzis, R. E., Goleman, D., & Rhee, K. S. (2000). Clustering competence in emotional intelligence: Insights from the emotional competence inventory. In R. Bar-On, & J. D. A. Parker (Eds.), *The handbook of emotional intelligence: Theory, development, assessment, and application at home, school, and in the workplace* (pp. 343-362). San Francisco, CA: Jossey-Bass; US.
- Durnali, M., Orakci, S., & Khalili, T. (2023). Fostering creative thinking skills to burst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entrepreneurial skills. *Thinking Skills and Creativity*, 47, 101200.
<https://doi.org/10.1016/j.tsc.2022.101200>

- Ealias, A., & George, J. (2012).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satisfaction: A correlational study. *Research Journal of Commerce and Behavioral Science*, 1(4), 37-42.
- Gil-Moreno, J., & Rico-González, M. (2023).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on preschoolers' emotional intelligence: A systematic review. *Sustainability*, 15(13), 10632.
<https://doi.org/10.3390/su151310632>
- Goleman, D. (1995).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Y: Bantam Books.
- Gómez-Leal, R., Holzer, A. A., Bradley, C., Fernández-Berrocal, P., & Patti, J. (2022).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in school leaders: A systematic review.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52(1), 1-21.
<https://doi.org/10.1080/0305764X.2021.1927987>
- Hansenne, M., & Legrand, J. (2012).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chool performance in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53, 264-268.
<https://doi.org/10.1016/j.ijer.2012.03.015>
- Herbst, H. H., Maree, J. G., & Sibanda, E. (2006).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abilities. *South African Journal of Higher Education*, 20(5), 592-612.
- Kotsou, I., Mikolajczak, M., Heeren, A., Grégoire, J., & Leys, C. (2019). Improving emotional intelligence: A systematic review of existing work and future challenges. *Emotion Review*, 11(2), 151-165.
<https://doi.org/10.1177/1754073917735902>
- Libbrecht, N., Lievens, F., Carette, B., & Côté, S. (2014). Emotional intelligence predicts success in medical school. *Emotion*, 14(1), 64-73.
<https://doi.org/10.1037/a0034392>
- Mayer, J. D., & Salovey, P. (1997).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J. Sluyter (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Educational implications* (pp. 3-34). Basic Books.
- Mayer, J. D., Roberts, R. D., & Barsade, S. G. (2008). Human abilities: Emotional intelligen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9, 507-53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9.103006.093646>
- Nelis, D., Quoidbach, J., Mikolajczak, M., & Hansenne, M. (2009). Increasing emotional intelligence: (How) is it possib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7(1), 36-41.
<https://doi.org/10.1016/j.paid.2009.01.046>
- Newman, D. A., Joseph, D. L., & MacCann, C. (2010). Emotional intelligence and job performance: The importance of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al labor context.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3(2), 159-164.
- Noori, A. Q., Orfan, S. N., & Noori, N. (2023). Principals'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eachers' emotional intelligence: A cross-sectional study of Takhar high schools, Afghanistan. *Leadership and Policy in Schools*, 1-16.
<https://doi.org/10.1080/15700763.2023.2176780>
- Parinussa, J. D., Taryana, T., Ningtyas, A. A., Rachman, R. S., & Tannady, H. (2023). Developing student emotional intelligence by involving the active role of teacher. *Journal on Education*, 5(3), 8528-8533.
<https://doi.org/10.31004/joe.v5i3.1638>
- Parker, J. D., Creque Sr, R. E., Barnhart, D. L., Harris, J. I., Majeski, S. A., Wood, L. M., Bond, B. J., & Hogan, M. J. (2004). Academic achievement in high school: Does emotional intelligence mat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7), 1321-1330.
<https://doi.org/10.1016/j.paid.2004.01.002>
- Resurrección, D. M., Salguero, J. M., & Ruiz-Aranda, D. (2014). Emotional intelligence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Adolescence*, 37(4), 461-472.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4.03.012>
- Rueda, P., Pérez-Romero, N., Cerezo, M. V., & Fernández-Berrocal, P. (2022). The role of emotional intelligence in adolescent bullying: A systematic review. *Psicología Educativa. Revista de Los Psicólogos de La Educación*, 28(1), 53-59.
<https://doi.org/10.7440/res64.2018.03>
- Saha, S., Das, R., Lim, W. M., Kumar, S., Malik, A., & Chillakuri, B. (2023).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dership: Insights for leading by feeling in the future of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Manpower*, 44(4), 671-701.
<https://doi.org/10.1108/IJM-12-2021-0690>
- Salovey, P., & Mayer, J. D. (1990).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9(3), 185-211.
<https://doi.org/10.2190/DUGG-P24E-52WK-6CDG>
- Salovey, P., Mayer, J. D., Caruso, D., & Lopes, P. N. (2003). Measuring emotional intelligence as a set of abilities with the Mayer-Salovey-Caruso emotional intelligence test. In S. J. Lopez, & C. R. Snyder (Eds.), *Positive psychological assessment: A handbook of models and measures* (pp. 251-265).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s://doi.org/10.1037/10612-016>
- Sánchez-Núñez, M. T., García-Rubio, N., Fernández-Berrocal,

- P., & Latorre, J. M. (2020). Emotional intelligence and mental health in the family: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perceived by parents and children.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17), 6255.
<https://doi.org/10.3390/ijerph17176255>
- Sener, E., Demirel, O., & Sarlak, K. (2009). The effect of the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atisfaction. *Studies in Health Technology Informatics*, 146, 710-711.
<https://doi.org/10.3233/978-1-60750-024-7-710>
- Singh, S. K. (2007). Emotional intelligence and organisational leadership: A gender study in Indian context. *International Journal of Indian Culture and Business Management*, 1(1-2), 48-63.
<https://doi.org/10.1504/IJICBM.2007.014470>
- Sy, T., Tram, S., & O'hara, L. A. (2006). Relation of employee and manager emotional intelligence to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8(3), 461-473.
<https://doi.org/10.1016/j.jvb.2005.10.003>
- Turculeț, A., & Tulbure, C. (2014). The relation between the emotional intelligence of parents and children.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2, 592-596.
<https://doi.org/10.1016/j.sbspro.2014.07.671>
- Vahedi, M., & Nikdel, H. (2011). Emotional intelligence, parental involv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30, 331-335.
- Weinberger, L. A. (2009). Emotional intelligence, leadership style, and perceived leadership effectiveness. *Advances in Developing Human Resources*, 11(6), 747-772.
<https://doi.org/10.1177/1523422309360811>
- Zeidner, M., Roberts, R. D., & Matthews, G. (2002). Can emotional intelligence be schooled? A critical review. *Educational Psychologist*, 37(4), 215-231.
https://doi.org/10.1207/S15326985EP3704_2